

■ 여야, 10월 국감 전략 가다듬기 시동

한나라 “10년 좌편향’ 바로 잡겠다” 민주당 “MB 정부 6개월 실정 추궁”

정기국회 초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여야가 10월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6일부터 20일간 진행될 국감을 통해 민생을 우선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각오이며, 민주당은 대정부 견제기능에 충실함으로써 야성(野性)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에 이번 국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6개월’을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개월이 수월하지 않았던 만큼 참여정부 마지막 1년에 공적의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국감을 지난 10년간 ‘좌편향’된 사회를 바로잡는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다. 촛불집회 등으로 어려웠던 지난 6

개월을 피해가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이명박 개혁’의 정당성과 함께 국감 이후 본격화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법안으로 492건을 꼽고 있다. 이중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한 법안 74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안 19건 등 201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언론·방송 문제, 공기업 선진화 문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과당 공세를 ‘국민의 방송’, ‘국민의 직장’ 등의 명분으로 내세워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0년만에 입장이 바뀐 만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책임국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을 3대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지난 6개월’의 실정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위해 국감 성과를 좌우할 증인 채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실책과 관련해서 ‘대리경질’ 논란을 빚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종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언니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사위 게이트’), 김귀환 서울시의장(‘뇌물 게이트’),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군납 게이트’) 등을 증인으로 채택, 파상공세를 펼 테세다.

민주당은 최근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국감 TF를 발족, 국감 체제로 본격 전환했으며 22일부터 사이버 국민제보센터도 가동한다. 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원 팀플레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금융상황점검 회의’ 긴급 소집 속사정

혼란 수습 메시지...‘비상 체제’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금융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가 ‘미국발(發) 금융 쇼크’에 확고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사령탑들이 대책을 숙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책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절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인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라”며 관계 장관들에게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개별기업의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현장을 챙기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 경제관련 부처에 사실상의 ‘비상 체제’를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장관 및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회의는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한 정부 내 ‘엇박자’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이 ‘미국 금융 위기’에 서로 엇갈린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 금융 사태와 관련, 최근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과정”이라고 낙관론을 펼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실물 쪽은 이제 (위기가) 시작”이라는 비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HSBC의 외환은행 인수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동요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수년째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 방침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 삼호 용당리 군사시설 추가 지정

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후속조치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천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에 이른다. 해제 및 완화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72배, 8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천㎡, 경기도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천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천778만3천㎡이다.

그러나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추동면, 충남 연기군, 충북 음성면 관성·구계리 일대 등 10개 지역 1천115만8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공용지, 지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해야”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식 금융시스템 전체

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파산을 앞둔 리먼브러더스의 인수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경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화유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정부

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통찰력이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허브 구상, 금산분리 해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자본시장 통합 등의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규제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9월1일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 시 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대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력특강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개강 11월 3일
최종문제풀이특강	10월 6일 ~10월 18일	현재접수중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공휴일 재직자반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화정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빌딩 4층

=47년간 공무원 시험에 전국 최다의 합격에 대세(大勢)를 이룬 중후한 無等을 만나세요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교세관법검철교보보복군소기전
정행무세원찰공정호건지부방술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개강 10월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중)회원 1년 (정)회원
● 합격시까지 (장기)회원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無等”은 “꼭” 합격 할수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